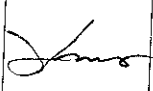


팀 원	팀 장	단 장	공 란
			

보도
매체

경기일보

4

2008년 6월 7일 토요일

시화·화옹 간척지 불법경작 특별 단속

“우선 분양권은 뜯 소문”

〈속보〉시화·화옹 간척지에 불법경작으로 몸살(본보 5일자 5면)을 앓고 있는 것과 관련, 관리자인 한국농촌공사 화안사업단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화안사업단은 6일 시화·화옹 간척지에 불법경작이 만연하고 있다는 경기일보의 지적에 따라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

련, 시행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우선 시화·화옹 간척지 내 9개 공사사무소 직원들을 동원, 불법경작 일제조사를 벌여 불법 경작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간척지에서 농지를 조성하다 적발된 중장비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조치기로 했으며 불법경작 방지를 위한 경고판도 확

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면 향후 간척지 분양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간척지 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경작 허가지역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